

* 등급정보 (계란) *



▷ 20개 업체에서 생산한 2천822만7천개에 대해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1*등급은 86.9%, 1등급은 11.7%, 2등급은 0.6%, 3등급은 0.9%를 차지, 전월대비 178만 4천개(5.9%) 감소, 전년동기 17개업체 대비 435만8천개(18.3%) 증가, 금월누계는 1억268만3천개로 전년동기 누계 대비 1천395만5천개(15.7%) 증가

계란등급판정 개수 및 출현율

(단위 : 천개, %)

중량 규격	계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08년 1~3월	102,683	91,927	89.5	9,995	9.7	474	0.5	288	0.3
'08년 3월	30,011	27,263	90.8	2,714	9.0	24	0.1	10	-
'08년 4월	28,227	24,516	86.9	3,304	11.7	16.7	0.6	241	0.9
왕란	279	173	62.2	9	3.4	-	-	96	34.4
특란	22,609	20,138	89.1	2,258	10.0	68	0.3	145	0.6
대란	5,302	4,172	78.7	1,033	19.5	97	1.8	-	-
중란	37	32	85.4	4	9.7	2	4.9	-	-
소란	-	-	-	-	-	-	-	-	-

* 축산뉴스 (계란) *

‡ 계란노른자, 유방암 예방효과 우수

계란 노른자가 유방암 예방효과에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스티븐 제이셀 박사는 성인여성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달걀 등에 함유된 영양분 성분인 콜린(choline)의 섭취정도에 따라 유방암 발병가능성에 차이가 있었다고 미국 실험생물학회 저널 최신호를 통해 밝혔다. 미국과학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과학논문소개 사이트인 유헤칼러트 4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콜린은 계란 노른자, 견과류, 간, 쇠고기,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에 들어 있으며 비타민B를 이루는 물질의 한 종류로 우리 몸에서 생리작용에 관여한다. 제이셀 박사는 “콜린은 세포의 정상 기능을 돕는 영양분이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임신부의 경우 기형아 출산예방 및 태아의 두뇌

발달과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콜린이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 “계란·오리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대한양계협회 광주전남도지회(지회장 정준규)는 AI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양계산물 소비가 줄어들자 나주시 농·축협 판매장에 양계산물 소비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계산대 근무자에게 어깨띠를 나눠주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전남도지회는 4월 중순부터 나주축협, 영산포농협, 중부농협, 남평농협 등 나주 관내 하나로마트 입구에 ‘계란·닭고기·오리고기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계산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어깨띠를 나눠주고 판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양계산물 홍보를 당부했다.